

2018. 11. 18.

제목: 방해꾼을 지나서

본문 말씀: 시편 23:1~6

(개역개정) 1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4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로역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떠올리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1) 좁은 문: 우리는 멸망하게 될 도시에서 나와 생명을 찾아 좁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누가 방해했습니까? 고집 씨, 유순 씨, 세속현자였습니다.

2) 천국으로 가는 길: 이들의 유혹을 이기고 좁은 문을 통과하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설명자가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주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 7가지 중에 기억나는 것만 말해 봅시다. ①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인도자다. ②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③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④영적인 실패와 좌절 중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 돕고 계신다. ⑤영적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⑥복음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들면 즉시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 ⑦최후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3) 좁은 길 위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듣고 이제 막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지요? 잠자는 사람들, 담을 넘어온 사람들,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잠자는 사람들이었지요? 약자 씨, 게으름 씨, 오만 씨입니다. 누가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지요? 허례 씨와 위선 씨입니다. 누가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의심 씨와 두려움 씨입니다. 혹 우리가 이들처럼 돼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다시 걸어갑시다. 주님이 도와십니다!

4) 누구와 함께 있나?: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에서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면서 영적인 충전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들입니까? 근신 씨, 지각 씨, 경건 씨, 애정 씨입니다.

5) 좁은 길을 위한 무장: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성을 떠나 다시 좁은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떠나기 전에 친구들이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서 전신을 무장시켜 주었지요. 허리띠를 띠우고, 호심경을 붙여주며, 신발을 신기고, 투구를 씌우고, 손에는 방패와 검을 쥐어 줍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이처럼 철저하게 무장까지 시켜주니 정말로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6)

자, 이제 크리스천은 무장한 채 비장한 각오로 좁은 길 위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좁은 길에서 반드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방해꾼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 무장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방해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사탄

먼저,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 '검손의 계곡'을 얼마 안 가서 아폴리온(Apollyon)이라는 괴물을 만났습니다. 이 아폴리온이라는 괴물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폴리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하지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한 방해꾼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고발하는 자, 천하를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첫째, 사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한다면, 당분간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쫓아가라고 조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투명한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나 스스로가 사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고소하는 자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꼬득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유혹하는 자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를 소망한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투명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아폴리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도 조금 다쳤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앞으로 크리스천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 상처가 남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꼬득이며 세상의 권세로 이끌려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배신감과 실망으로 좌절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하나님이 곧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 이깁시다!

2. 역경

두 번째로, 좁은 길 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역경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크리스천이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요? 산과 산이 이어지는 곳에 폭 패어져 들어가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곳은 햇볕이 들지 않아서 어둡고 습합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좁은 길을 갈 때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이런 골짜기의 때입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학업에 성과가 없을 때,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직장에서 실패했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한마디로 역경의 때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무기력하며,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멈추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지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설상가상으로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오지요. 바로 조금전에 보았던 방해꾼인 아폴리온 말입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고 고발하면서 우리를 더욱 절망 속으로 끌어들이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빨리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이 골짜기를 지나쳐서 나와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욥이 지나가야 했던 역경을 다들 아시지요? 그 어렵고 힘든 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 12:22)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골짜기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걸어 나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사탄은 말씀의 검으로 무찌를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까지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다음에,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또 만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그저

'아버지~'라고만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즐거운 마음으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지, 크리스천은 그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이 골짜기를 자기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또다른 사람도 이 골짜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상태인데다가 온갖 방해꾼들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앞서 지나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자기와도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셋째, 앞서 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면 동행자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힘이 납니다.

즉, 이 역경은 누구나 지나가는 것이고, 이 역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이 역경을 지나간 사람들을 얼른 쫓아가면 믿음의 동행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 역경이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세상풍조

세 번째로 우리가 부딪쳐야 할 방해꾼은 세상풍조입니다.

골짜기를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이제 늙은 교황과 이교도가 살고 있는 동굴 앞을 지나갑니다. 동굴 앞에는 이들의 갖은 권세와 폭정으로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 뼈와 피와 재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 천로역정에 교황과 이교도를 언급했을까요? 존 번연이 천로역정을 쓸 당시 영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이교도였던 이슬람이 스페인을 정복하고는 유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권위는 그 힘을 잃어 기력이 쇠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에 반대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려던 청교도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존 번연은 크리스천이 아무리 사탄을 이기고 골짜기를 벗어나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상풍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풍조는 어떻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생겨나고 있어서 그 수를 가늠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 내내 이단 리스트를 찾아 보았는데요, 2018년 자료는 찾지 못했고 2013년 통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주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자세히 나열돼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볼 때 총 106개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5년 전의 리스트이고, 지금은 당연히 더 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은 이단이라고 숨어 있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회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갑시다!

어쨌든 여러분, 이단들의 비난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더라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4, 13~15)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군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단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기존 교회의 성도였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이단 연구가인 탁명환 선생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원리는 다음의 여섯 가지입니다(기독교 이단연구 p. 74~79).

첫째,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종파는 이단이다.

둘째,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면 이단이다.

셋째, 성경 66권을 가감하면 이단이다.

넷째, 하나님 외에 그들의 지도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하면 이단이다.

다섯째, 불건전한 주관적인 신비주의로 직통계시를 주장하거나 직접 자기와만 통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단이다.

여섯째, 성경해석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해석하면 이단이다.

이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오늘날의 세상풍조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만큼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풍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진짜 진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세상풍조에 역행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이미 여러 나라에 퍼져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종교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째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자매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물더군요.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것이냐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은 변함없이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양성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둘째로, 저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혐오할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독교계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로역정에서 늙은 교황과 이교도들의 동굴 앞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이 무엇이었습니다? 이들의 억압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뼈와 피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선배들을 본받아 세상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지켜냅시다.

자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역경과 세상풍조'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방해꾼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옹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미가 7:8)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